



# 유럽연합(EU) 통합교육 시스템

유 임 수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I. 서론

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원동력이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전통적인 교육상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5개국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교육문화, 민족주의, 국수주의 등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회원국 문화를 받아들여 유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U는 전 회원국들을 포함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실시를 강력히 추진하여 회원 국가들의 통합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고유한 교육문화는 있으나 EU 차원의 정체성을 통합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두고 통합·화합을 위한 공통분모를 형성하여 이러한 차원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유럽인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중심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종교적 색채가 국가교육원칙에 개입할 수 없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종교교육의 선택권이 많아 종교와 교육의 분리가 되었으나 이탈리아의 교육기관은 가톨릭의 영향이 크다. 독일은 정부에 의해 대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는 없으나 초·중·고등학교에는 지방 정부에 따라 흔적이나 영향력이 남아 있다. EU 회원국 중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규 회원국인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사회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종교, 특히 가톨릭의 세력이 다시 득세하였으나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이 없고, EU 기준에 따른 통합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EU는 이에 따라 2012년 가입을 예상하고 있는 터키 및 기타 국가에도 기독교 성향의 EU 회원국과 같은 종교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터키의 사이플러스 관계 개선도 우선시하고 있으며, EU 헌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키의 이슬람 위주 교육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EU 통합교육의 정의는 공통 문화의 가치, 기독교,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기초 위에 합당한 정책을 세우고 EU 통합교육을 강화하여 유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은 1920년대 이후 전체주의와 자유주의가 대립하여 결국 자유주의의 승리로 2차

“

EU는 전 회원국들을 포함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실시를 강력히 추진하여 회원 국가들의 통합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고유한 교육문화는 있으나 EU 차원의 정체성을 통합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두고 통합·화합을 위한 공통분모를 형성하여 이러한 차원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유럽인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

대전을 종결하였다. 1945년 이후 미국의 마샬계획이 유럽 경제재건에 기여했지만 유럽인들의 자구 노력이 가속화되어 6개국에 의한 유럽 공동체(EEC.1958)가 탄생되었다. 계속해서 유럽대륙에서는 평화 정착 노력이 있었고, 서유럽인들은 어둡고 복잡한 과거 청산을 마무리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 여타 대륙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럽은 단합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의 드골과 서독의 아데나워가 1963년 엘리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는 양국의 화해는 물론 유럽통합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물론 여러 차례의 불협화음은 있었으나 화합의 시대정신은 지속되어 2003년 40주년을 맞이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또한 각료회의의 상대국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을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과시하였으며, 2001년 9.11 사태 이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영미 계통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 정책에 대한 제동에 공동

대응하기도 하였다.

전후 유럽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에 따른 분배의 형평성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역내 국가들은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저항과 더불어 불만족이 늘어나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와 분배정책에 강한 의지가 있었다. 성장과 분배 간의 형평과 관련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1968년 파리 소르본느대학의 학생운동이 바로 이러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당시 월남전 반대를 중심으로 서유럽의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EU의 리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들은 교육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재정으로 평등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여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운영하는 평준화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학제에 맞추기 위해 개편하여 입시경쟁을 완화시키고, 진로의 기회를 넓게 줌으로써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 있었다. EU는

교육 평준화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다양한 학교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별 회원국들에게 교육정책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69년 사민당이 집권함으로써 사회개혁 중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학의 설립, 교수임용 확대, 장학금제도 확대 등으로 성장과 균형에 걸맞은 정책을 쓰기도 했다. 그 예로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사민당 출신 헤르도나니 교육부 장관실에 한 학생으로부터 보내져 온 소포가 있었다. 그 속에는 마른 빵과 다 떨어진 구두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당시 대학교의 시설과 학생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냉전체제는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유럽에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치아래 유럽 통합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유럽은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나의 정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유럽인의 시민권 보장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유럽연합의 통합교육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면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 총리에 의해 주도적으로 EU 통합교육 시스템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이것은 회원국 개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유럽인을 위한 통합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인을 통합하는 작업을 가속화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교육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실질적으로는 개별국가들이 적용·수행함으로써 EU 회원국의 통합교육을 가속화하였다.

세계화가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면서 국경을 넘어서 물적·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기업의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유럽경제는 미국에 비해서 첨단 산업, 즉 정보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가 더뎠고 컴퓨터의 보급률이 낮아서 이들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번지면서 유럽도 평등 교육보다는 효율성 위주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유럽연합은 21세기에 유럽의 경쟁력 있는 발전과 유럽연합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1999년 베를린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또한 2000년 베를린회의에서는 아젠다 2000을 발표하여 2006년까지 EU의 중기 재정문제를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리스본 회의에서 아젠다 2010을 결정함으로써 유럽이 지식정보화사회에 기초하여 고용경제개혁 및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신경제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산업의 육성, 즉 지식정보,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의 육성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유럽의 정보화를 위해서 EU는 학교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컴퓨터 등을 보급시켰다. 그 예로 정보화시대의 평준화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저소득 대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보급을 위해 은행대출이 쉽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보급률을 높였다.

## II. 본론

EU 국가는 양적·질적으로 교육 통합 작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룩한 유럽연합의 질적 변화로는 시장, 화폐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겨냥한 유럽헌법의 마련이

전부이다. 유럽연합의 실질적 통합의 기초는 역내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유럽 시민권 문제, 유럽 통합교육 시스템, 유럽인 양성 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 정부의 교육 정책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U는 교육통합을 통하여 과거의 유럽적인 사고에 현실감을 합쳐 유럽 부활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회원국 중 다음 국가들을 보자.

프랑스의 경우 중앙집권제가 강해 교육도 국가가 주도하나 독일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교육문제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교육문화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과 EU는 교육협정을 맺어 양 지역에서 교육받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협조는 같은 수준에 놓여 있어 양 대륙권 안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과거 유럽인들은 미국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오늘날 미국의 발전을 이끌어 그들이 노벨상을 독차지할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럽의 이러한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의 내부적인 통합노력을 강화하여 언어, 문화, 기술, 응용과학, 경제 등의 분야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제적 인력을 동원하여 산학연구활동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역내 회원국 중에는 국가별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의 중심국가들이 소규모국가들과 함께 조정능력을 발휘하여 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혁에 관

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U에서 교육은 국가가 생산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연합에서는 교육과 대학운영을 정부가 담당하고 초·중·고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을 우선시 하는 체제로서 교육비가 들지 않고 학생들도 보험 등의 일부 지출을 제외하고는 교육비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으며 생활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장학제도의 혜택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는 정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소득자의 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부모의 소득에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공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 수학기간과 혜택을 줄여 나가면서 교육비용의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대학수업료의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것이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위헌소재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들은 개별 국가들의 교육재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의 교육부분의 기여금을 증가시키고 각 회원국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재정 자립도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 부분의 기여제도를 도입하여 사립대학 운영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낮은 비율에 불과한 대학재정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 교육투자를 촉진하여 기숙사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립대의 기부금을 손비처리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정신으로 유럽시민권의 개념이 정착되면서 유럽인의 양성이라는 전략이 교육관으로 퍼지게 되었다. 유럽인들의 동질성의 확보와 단일공동체를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EU의 통합교육 시스템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목표를 위해 고안되고 있다.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 EU 헌법이나 통합교육 면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개별 회원국가들의 교육당국이 함께 조정·운영하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 중이다. 1980년 중반 이후 미테랑과 콜에 의해서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추스르는 유럽인의 양성 전략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개별국가가 협력하는 교육문화 등을 다루는 소크라테스(Socrates) 프로그램, 이공계 교육협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Gioventu)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는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학생과 교사를 교환하는 계획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학생들이 다른 유럽국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공동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핵심적 사업으로 유럽의 대학생들이 다른 유럽국가의 대학에서 학과과정의 일부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987년 회원국 간 정기적인 학생교류를 위해 설립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차원의 학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

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유럽차원의 대학협력 시스템 구축이다. 린구아(Lingua) 프로그램은 협동언어교육을 위한 계획이다. 방법과 다양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전파하는 한편 영어, 프랑스어의 독점적 지위를 막고 다양한 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주류 언어인 소수국 언어 예컨대 포르투갈어, 그리스어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 발전하기 위해 소수국 언어를 지원하여 전체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코메니누스(Comenius) 프로그램은 역내 회원국들 간의 교수법 개혁 및 국제문화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아이아드(Aiad)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및 방송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공계 교육혁명 프로그램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는 코메트(Comett: 신기술교육) 프로그램, 페트라(Petra: 직업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리스(Iris: 여성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코메트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혁신에 유럽사회가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교육과 기술관련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페트라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술과 직업 노동시장을 연결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구직자들은 기업이 어떤 우대조건을 내세우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리스 프로그램은 여성의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도가 늘어나는 여성들에게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끌어갈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주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호 교환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페트라, 즉 직업교육과 템프스(Tempus)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동 프로그램으로 남녀평등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나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장애인들의 학교 적응, 이민자 자녀의 교내 적응, 문맹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제도에서 낙오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또한 수립하고 있다. 아리온 프로그램은 교육관련 공무원이나 행정 관리 요원들의 상호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성인들의 직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포스트 프로그램이다.

EU의 학교운영체제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역내 회원국의 학생들이 지역 내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교육에서 유럽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가운데 유럽국가의 여러 가지 언어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어린 학생들이 장애에 유럽인이 되기 위한 교육으로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초·중·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실천 학교 11개 국의 언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에서는 1972년 EU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유럽대학원(European University in status)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유럽대학의 목표는 인문사회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유럽연합의 정신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대학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가 제공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유

럽인 양성 및 여타 대륙인들을 위한 벨기에 브뤼주(Brugge)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적 교육을 시도하고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EU는 교육, 과학기술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체적인 개념과 개별 회원국의 교육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EU 교육정책에 개별회원국가의 교육정책을 접목시켜 나가면서 또한 개별 회원국 자체의 자립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 회원국의 정부형태, 즉 중앙집권국가와 분권의 형태에 따라서 교육의 주최자와 수행자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집권정부가 보수주의 정당인가, 개혁주의 정당인가에 따라서 교육정책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및 독일의 기민당 등이 집권하면 교육정책은 평등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보수적 정책을 취하고 사립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 반대로 독일의 사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평등정책을 쓰게 되기 때문에 평등과 형평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어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늘리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개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이것은 유럽사회에 교육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럽 국가는 정치 세력의 변화에 따라 원칙과 근본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EU는 미국과 일본 등 여타 대륙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느냐가 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대학 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학개혁의 핵심이다. 현재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세계로 관심을 돌려 유럽이 통합교육의 학문적 중심, 지성의 요람으로 다시 자리 잡음으로써 과거 유럽의 교육이 현재 다른 나라의 교육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EU는 회원국 대학들의 고급화 전략,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을 발전시켜 유럽인 양성의 극대화를 이룩해야 한다.

EU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유럽도시의 대학총장들이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 주기적인 총장회의를 통해 대학교육의 발전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총장회의는 유럽인의 아이덴티티를 얻고 유럽인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를 수용하는 데에 목표가 있으며, 동시에 유럽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유럽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유럽대학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전통적이고 대규모인 대학과 소규모이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대학들은 교육시설 등의 교육의 내용 등의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은 투자를 통해 하드웨어인 교육설비, 연구실, 도서관을 늘려야 하고, 소프트웨어인 강의, 교과내용과 교수법 등을 새롭게 고쳐나가야 한다. 소프트웨어인 교육의 내용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유럽인들이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중산층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교육 콘텐츠, 특히 각국의 교육 역사와 EU 공동체 역사의 조화를 위한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으며, 따라서 교과내용이나 교수방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은 인문사회과학을 통해서 지성의 요람으로 발전해왔으나 현대에 와서 그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인문학이 여타 학문의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최근의 기계문명의 발전이 인문학의 영역을 많이 깨고 있다. 문학, 사학, 철학과 같은 정신문화들이 과학기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반영한다. 문학, 사학, 철학 분야에서는 공통점이 적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내용상을 고려하여 이의 조화로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다.

유럽대학은 영미계와 라틴계, 게르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의 주요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소규모 국가들의 교육철학은 병존해 갈 수밖에 없다. 소규모 국가들은 생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지향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해 나간다.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의 산실인 영국은 전통적으로 발달되어 대륙의 지도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창달에 큰 역할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유럽의 최초대학을 설립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가져와 이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교육은 여전히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도 변화를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교육제도는 그랑제꼴(최고 교육기관) 출신의 소수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국가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통의 뿌리 위에서 새 바람을 집어넣는데 주력하고 있다.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기초과학이 앞

서고, 응용과학은 뒤쳐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는 경영이나 관리 등의 분야에 프랑스 INSEAD(유럽경영대학원)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미술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 미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INADI 같은 연구소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라틴계 민족이 갖는 특수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창작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으로 밀라노를 세계적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교육의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대학을 중심으로 신설대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파시킬 수 있는 사립대학의 신설을 강화하고, 얼마 전 하노버에 여자대학교를 만들어서 여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EU의 교육정책은 다른 대륙과의 경쟁을 위해서 역내의 연구자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교수, 연구원의 확충을 위해 영 프로페셔널 계약직 교수제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학의 교수인력제도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박사 학위 후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일정한 근무기간과 업적을 통해서 교수의 지위를 얻는 것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약해서 교수되기 어렵고 또한 계약직 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EU는 대학사회의 재정의 어려움과 후계자 양성을 위해 계약직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

인 예가 젊은 교수들을 계약직으로 대학에 근무하게 하는 근로제이다. 학문적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박사학위가 끝난 사람들에게 일정한 계약직을 주어서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업적과 능력, 실적을 쌓으면 정년을 보장하는 디오프로그램(선·후진국 연구와 공동 프로젝트를)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체 차원에서 기초 응용 과학기술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갈릴레오 프로그램과 마리쿠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 전망이 기대된다. 이것은 EU차원에서 회원국들의 자연 기초 과학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모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외에도 미국에 비해서 유럽대학들은 첨단 시설이 열세하기 때문에 이를 투자와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유럽연합과 개별국가들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부분적으로 통합교육 시스템의 대학학위제도 운영을 공동적으로 하는 공동학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대학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 일국만이 아니라 여러 인접국가의 대학과 공동운영을 하는 법학교육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동학위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예로 프랑스 파리대학의 법과대학은 독일의 베를린대학, 뮌헨대학, 뮌스터대학과 공동학위제도를 운영하여 법학교수가 상호교환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동교과과정을 통한 학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양국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젊은 박사들에게 교수 자격시험 제도와 함께 대학의 교수직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법학교육에서도



본받을 만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아셈듀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25개국과 아시아연합+한·중·일 국가들이 아세안을 구성하고 있어 이들 지역 간의 인력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럽 국가들의 대학과 아시안 대학 간, 개인 간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성과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유럽인과 아시아인이 함께 연구하는 듀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적에 관계없이 엘리트층을 많이 활용하는 제도 또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재정지원의 약화로 자연과학기술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은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공동적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여러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뮌헨대학은 뮌헨대학, 막스프랑크연구소, 시멘스사가 주축이 되어 미국과 독일 대학의 기술교류를 강화하고 있어서 미국과 독일의 학자들이 상호방문을 통해 연구를 강화하고 양국의 교수, 연구원들이 연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것이 산업부문에까지 응용됨으로써 확대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과학기술협력 다자간 협력 및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역내에 세계대학과 물류경영, 첨단과학해양 등의 분야에서 별도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시너지 효과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기초응용과학 분야의 연구는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유럽이 갖는 기초연구에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양 지역 간의 협력이 없이는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현재까지 기술연구에 대한 투

자가 적고 인력개발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했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교육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이 과학기술을 포함한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순위를 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EU 회원국의 교육개혁에 대한 기준에는 미달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 이의 개선점을 EU 집행위는 마련하고 있다. 이 기구는 매년 30개국으로 구성된 회원국의 교육여건을 조사연구하여 PISA 보고서(학력, 태도 및 능력검사)의 결과에 따라 순위를 맺어주고 있다. 이 OECD 보고서는 학생들의 능력, 교사확보율, 학교제정, 시설, 교과내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OECD가 발표하는 PISA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국가들의 순위는 과학이나 수학 면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 이를 기초로 삼아 개별국가들은 교육개혁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부분적인 발전은 현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Ⅲ. 결론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인은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늦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교육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 국가 간에 통합과 협력의 무드가 조성돼야 하는데 분쟁과 갈등, 불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내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하고, EU라는 통합체

“

한국 역시 통합교육의 목적을 우선 개발하고, 한·중·일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교육의 핵심은 역사교육과 언어의 해결인데 한·중·일 삼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도 통합교육은 순조롭게 되어 제도적 학위인정, 학사과정의 지속 등으로 학생들이 국가 간 이동에 불편은 없으나 과학기술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등의 분야에서도 가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에 의해 21세기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경험은 다양성이 핵심이다. EU는 그 발전과정에서 회원국들에게 주요가치에 대한 일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치의 수용에 중점을 두어왔다.

교육이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육아휴직 따위의 부담을 기업이 지고 있어 기업이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즉 여성들이 정치, 경제 각 분야, 즉 대통령, 총리, 장관 등과 CEO, 과학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지도자가 되면 감성적일 뿐만 아니라 부패구조 등에서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아시아와 여타 국가들 사이에 적극적인 교류가 요망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교역 투자활동 등에 따른 외국인증가, 외국학생의 증가, 외국 두뇌의 유입 등 국제사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조선족은 물론 제3세계의 노동자,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이들의 생활 기반이 늘어나 2세 교육 등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가 다양성을 가지게 되면서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인권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다양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분단된 남북한은 이제 긴장이 점차 완화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적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획일적인 문화에서 오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획일적인 문화에서 다원적인 문화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교육의 준비 없이는 통일의 길이 어렵다. 한국은 남북통일이라는 지상과제에 얽매어 있는 실정으로 남북 간의 이질적인 교육

은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정치경제 관계가 밀접한 일본, 중국 등과의 통합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현재 가능한 해결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주관할 수 있는 국공립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EU의 독불 교육 체제 등의 정책과 같이 꾸려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시설 확대 등의 하드웨어에 지원을 마련하고 EU와 같이 각종 제도들을 언어, 문화, 예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높여야하고,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가운데 생명과학의 황우석, 물리학의 김현택, 우주천문학의 이영욱 교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 교육의 좋은 예이다.

한국 역시 통합교육의 목적을 우선 개발하고, 한·중·일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해방 60주년뿐만 아니라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일 관계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목적은 상호이해, 불신의 제거 협력의 장을 넓혀 상호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의 핵심은 역사교육과 언어의 해결인데 현재 한일 간의 독도문제, 한중 간의 동북공정, 중일 간의 다오위다오(센카쿠)제도 문제 등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한·중·일 삼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도 통합교육은 순조롭게 되어 제도적 학위인정, 학사과정의 지속 등

으로 학생들이 국가 간 이동에 불편은 없으나 과학기술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등의 분야에서도 가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영국의 대프랑스해전을 이끈 넬슨 제독의 사망과 트라팔가해전의 승리 2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이 거행되었는데, 프랑스는 과거의 쓰라린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기념식에 50대의 함대를 보내 영국 승전을 축하해주었다. 이러한 사실이 앞으로 한·중·일 간의 통합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유임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및 상경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원혜대학교, 포츠담대학교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유럽학회 회장, 아시아·유럽 미래 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OECD와 한국경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지역주의』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